

레저 & 트래블

천년 고찰의 고즈넉함에 폭~ 호젓한 어촌 풍경 속으로 쏙~



남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달마산을 병풍삼아 해남 육지 가장 남쪽 끝에 자리잡은 미황사. 청명한 날에는 대웅전 앞에서 서해바다와 다도해가 시야에 잡힐 정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을의 문턱

혼자 떠나는 여행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한여름에 지친 심신을 추스르게 한다.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가 벌써 정답다. 한 계절을 정리할 때는 여행만 한 것이 없다.

누구나 무작정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우울할 때, 출근하기 싫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 나를 찾고 싶을 때....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이유없이 떠나고 싶은 욕구로 나타나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욕구로 '떠남'에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능력 미저 엿보인다.

그렇지만 치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일탈의 감흥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훌쩍 떠나는 여행을 하며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추스려 보자.

기암 괴석·천불 벽화 해남 미황사

해남의 팥밭마을이 육지의 최남단이라면 달마산의 미황사(美黃寺)는 육지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절이다.

두륜산의 자락은 팥밭으로 이어지다 달마산에서 수직 바위를 일렬로 정렬시켜놓았다. 해발 489m로 높지 않으나 해수면에서부터 솟아 오른 덕에 산세가 녹차 같다. 칼처럼, 창처럼 솟구친 바위의 능선은 달마산 정상인 불선봉을 지나 도솔봉까지 약 8km에 걸쳐 이어진 다음 팥밭에 솟은 사자봉에서 갈무리된다. 남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달마산을 병풍삼아 서편 자락 별 좋은 곳에 미황사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육지 최고 그트머리에 있는 절인 탓일까? 입장료도 주차요금도 없다. 누각 밑을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넓은 절 마당. 그 마당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소박하지만 기품있는 대웅전과 함께 그 뒤에 그림처럼 펼쳐진 달마산의 기암괴석이 한눈에 들어

온다. 여기가 바로 극락이구나 싶다.

달마산은 남쪽의 금강산이라 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다.

이 산이 둘러싼 대웅전은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두 팔로 안아줄 듯 포근하게 맞아준다. 긴 세월 동안 단청의 빛이 바래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다. 보물 947호로 지정된 대웅보전 천장에는 벌어진 글자와 일천불의 벽화가 있는데 국내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다.

천장 곳곳에 그려진 천불의 부처님 때문에 미황사 대웅전에서 세 번만 절을 올리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부처님이 천 분이 계시니 세번 절하면 삼천배 가 되니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겠는가?

독경소리 울리는 대웅전 너머로는 달마산 암봉이 마치 호위 군사마냥 열방해 사찰을 지키고 있다. 대웅전을 가운데 두고 좌우의 요새와 뒤쪽의 응진당은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달마산의 산세와 잘 어울려서 선경을 빛어낸다.

청명한 날이면 대웅전 앞에서 저 멀리 서해바다와 다도해가 시야에 잡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내를 천천히 걸다보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것 같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선 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아름다운 어촌·이국적 향기 목포 외달도

외달도는 달리도의 밖에 있기에 '외달도'라 부르고 있다.

어떤 이는 '외로운 섬이어서 외달도'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그런 유래를 갖다 붙인 사람은 자신의 외로운 심세를 그렇게 표현 했나 보다.

외달도는 스무 가구 정도가 웅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섬이다. 섬 전체 둘레가 4km 1시간 정도면 전부 구경을 할 수 있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6km 지점, 육지라면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마치 세상 끝에 와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남도 그트머리 목포에서도 배를 타고 50분이나 더 찾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외달도는 빠른 배로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어찌된 '홀적' 떠나면 마음이 외달도를 그토록 멀리 떠어 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외달도에 가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할 필요가 없다. 몇 시

에 출발해서 점심에는 어떤 것을 먹고, 몇 시까지 무엇을 하다가 와야겠다는 계획표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외달도를 너무 평가 절하하면 안된다. 외달도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곳' 중에 하나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의 가족 휴양지로, 연인들의 아기자기한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외달도의 자랑인 해수욕장은 바닷물을 끌어다 놓은 풀장으로 수영을 즐기며 청정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국적인 곳으로 전국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젓한 해수욕장은 연인과 한가로운 거닐기 좋으며, 가족들과 이리저리 이야기꽃을 피우며 쏘그리고 앉아 있으면 조개를 한 양동이나 썰 수 있는 갯벌도 있다. 거기에 깔끔하고 인상 좋은 한옥 민박집과 시원한 숲길, 가두리 낚시터도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바다는 은은하게 물들이는 낙조가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도록 유도한다. 이 섬은 바가지요즘이나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유혹하려는 호객꾼들 방해꾼이 없다. 그래서 외달도는 혼자하기에 좋은 여행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바닷물을 끌어 올려 조성한 외달도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가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위치: 광주지방법원 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062) 222-8446

경매채택/투자수익확충/성공적 파트너
권리분석, 영도 유적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기예상분석, 예고통지, 선순위 기술통지, 가처분, 가압류처인 등 체계화된 상담을 가드립니다. (주)옥션코리아 대표 1:1 무료상담

구분	소재지	대면	감평가	최저가
근린시설	월산동/주유소	372/96	18억200만	11억800만
	월산동/주유소	1347/68	29억100만	19억800만
	월산동/주유소	50/234	9억700만	19억800만
	월산동/주유소	30/40	29억200만	19억800만
근린주택	월산동/주택	400/1	9억200만	29억200만
	월산동/주택	475/1	18억700만	16억100만
	월산동/주택	168/768	14억400만	7억800만
	월산동/주택	549/176	7억910만	3억2100만

부동산 경매의 지부심!

법원경매 대증법률(주) T.062)223-6600 010-7668-6622

지역	소재지	대면(㎡)	총	감평가	최저가
서구	신수동	154/73	2층	19억1천	9억
	신수동	221/52	2층	19억4천	9억
	신수동	142/96	2층	19억2천	9억
	신수동	579/105	2층	19억2천	9억

수완 부동산 컨설팅

H·P : 010-5714-1114 (하남공단 3번로 / 수완지구 앞)

- 산월동 자연녹지**
- 전지장고 ~ 보훈병원 사이 약 6,000㎡
- 주유소, 화물차고지, 물류창고/분할가
- 입국지역 고급주택가 부지**
- 롯데A, 입산초교 서측 약 380㎡
- 고급주택 밀집지역 / 별도 토공사 불요
- 단독주택 매매**
- 초대형 양면고 ~ 문화예술회관사, 단지 약 200㎡ 2층주택 / 1층 주인집 2층별도 출입 / 2가구 임대중
정원수, 연못 관리상태최상 / 최신인테리어 개보수 완료
- 담양 권리지역 임야**
- 창평 23,000㎡ / 폭9m 잔디로복호
- 철도, 일곡에서 10분 거리
- 공장, 제철장, 물류창고, 복지시설가능
- 원풍매도 (수익률 약 15%)**
- 도산역세권 / 원풍 17실, 쓰리룸 1실
- 매매가 4억 3천만 원 / 실투자 2억 3천만 원
- 보증금 2억, 월세 280만원
- 수완지구**
- 초대형학원 최고임지 확보
- 아파트 분양권 로얄 다수 확보 (현직, 코오롱, 우이, LG지...)
- 공장 매매 / 임대**
- 하남, 소촌 평등공단 매매 임대대금
수시 접수 & 처리중
- 기타**
- 수익성 좋은 10억 전후 건물구입 / 매수자 대기중